

추태화

본회 연구위원, 독문학 박사, 빙송통신대학

# 이웃의 현실과 정의의 실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지문]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경찰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서 찢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도 폭력이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재난의 나라이다. 누가 감히 폭력에 의해 질서를 세우려는가? 십칠 세기 스웨덴의 수상이었던 악셀 옥센스티르나의 시대 이래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지도자가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회생이라는 말은 전혀 위선으로 변한다. 나는 과거의 착취와 야만이 오히려 정직하였다고 생각한다. 햄릿을 읽고 모짜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웃집에서 받고 있는 인간적 절망에 대해 눈물짓는 능력은 마비당하고, 또 상실당한 것은 아닐까? 세대와 세기가 우리에게서 쓸모도 없이 지나갔다. 세계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 무엇 하나 주지 못했고, 가르치지도 못했다. 우리는 인류의 사상에 아무 것도 참가하지 못했고..... 남의 사상으로부터는 오직 기만적인 겉껍질과 쓸모 없는 가장자리 장식만을 취했을 뿐이다. 지배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할 일을 준다는 것,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일, 그들이 목적 없이 공허하고 황량한 삶의 주위를 방황하지 않게 할 어떤 일을 준다는 것이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 1. 작가와 작품에 관하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조세희의 소설이다. 작가는 1942년 경기도 가평 출생으로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뚝대없는 장선(葬船)』이 당선되어 문단에 올랐다. 이 작품은 문예지 『문학과 지성』 1976년 겨울호에 실렸는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0쇄를 넘게 인쇄되고 읽히는 소설로서 가히 70년대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 하겠다. 100쇄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과 함께 한국문학사에서 그 전례가 없었던 최다수 인쇄라는 기록이다.

이 작품의 외형적인 구도는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 여느 작품과 다를 바 없는 중편 소설과 같아 보인다. 철거민 촌에 사는 한 가정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작품을 문학사에 자리매김하도록 끌어올린 점이 있다면 그것은 서정성이다. 열악한 환경, 등장인물들의 궁핍함, 암울한 현실 묘사를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다름아닌 동화적 서정성이다. 독자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작가가 한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드러났던 시대현실을 소재로 하면서도 정통적인 사실주의 소설 기법으로 정면대결을 시도하지 않고, 동화적인 분위기로 서정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대의 문학 중에서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같은 소재를 주로 다룬 문학유파가 있다. 실천문학이나 민족문학 계열이 그들이다. 이들은 경제개발계획의 뒀안길에서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빈부격차 문제, 노사문제, 노동자 처우, 인권문제 등을 주테마로 수용하였다. 사회적 리얼리즘은 인권회복, 사회변혁이라는 시급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소재의 다양성에 비하여 문체가 경직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때로는 문학성보다는 목적 지향 내지는 사회인식의 계몽이라는 대전제 아래 경향문학으로 흐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같은 주제이면서도 서정적인 서술 (Narrative) 기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리얼리즘과는 다른 분위기를 창조한다. 이 작품이 『창작과 비평』과 같은 실천문학계의 문예지에 실리지 않고 『문학과 지성』에 실렸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작품과 작가의 성향을 시사해 주는 면이 있다 하겠다.

## 2. 소설의 구도로서의 등장인물

이 작품은 20세기 중반의 한국 사회 현실을 그 소재로 하고 있다. 주인공은 “나”라는 일인칭 화자(話者)<sup>1)</sup>이다.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은 도시의 한 번두리, 그곳은 도시의 부를 누리보지 못한 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 소위 영세민촌이었다. 이곳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다. 재개발 사업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실존적인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의 가정은 전형적인 영세민 가정이다. 그들이 일하는 직업이 그것을 말해준다. 아버지는 노동자였고, 영수는 인쇄소에서 일하며, 영호는 인쇄소, 칠공소, 목재소 등지에서 일했다. 영희는 인쇄소 그리고 빵집에서 일했다. 오빠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만다. 이 소설의 무게를 유지하는 인물은 단연 난장이 아버지이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러한 인물과 대립하여 등장하는 인물군이 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멋진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 입주권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 곁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인다. 권력 때문에 영세민들은 그들에게 저자세일 수 밖에 없다. 소설에서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등장한다. 또한 부류가 있다면 그런 자들과 결탁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다.

소설의 두 인물군은 대립적인 상태로 등장한다. 끝내 이 대립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뉜다. 즉 피해자는 영세민촌에 사는 사람들로서 가진 것이 없어 피해를 상습적으로 당해온 사람들이며, 가해자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들은 영세민들의 생존권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작은 소유조차 박탈하려는 피를 가진 자들이다. 이 인물군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

1) 이 소설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은 '나'라는 서로 다른 화자로 구성되어져 있다.

것으로 보인다.

### 3. 산업화 시대와 인간의 상황

#### 3.1 산업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공간이 되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재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전개되었던 산업화 과정에 있다. 산업화 (Industrialisation)는 봉건사회를 무너뜨리고 근대시민사회를 이룩하는 기반을 가져다 준 문명의 한 단계이다. 산업화는 그 뒤로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변형되어 적용되었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뜻하기도 하고, 때로 경제발전과 대등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산업화라는 것은 국가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경제적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하였다.

산업화는 산업의 기지로 대도시를 형성하게 되었고, 도시로 많은 노동자를 불러들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어 농업이나 어업 등의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대도시에는 인구 과밀도 현상이 생겼다. 도시 변두리에 소위 달동네라는 지역이 형성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산업화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경제원리에 입각한 시장이론을 주도하였기에 이에 따라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났다. 이는 사회계층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도시는 은연 중에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이분화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노동자로 탈바꿈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더욱 심각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은 경제적인 실리와 개인적인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속성 때문에 인간의 정신, 내면의 풍요를 상실케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 점이다.

### 3.2 인간의 상황

한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지향해온 경제부흥은 그 이면에 빈부격차라는 사회문제를 낳았다. 이는 크게 두가지 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가시적인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현상이다.

가시적인 사회문제는 가난이다. 빈부의 격차로 인해 나타난 가난은 사람들의 주거공간을 제한하게 하였다. 주거공간이 곧 생활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고 하면 소설 속의 '낙원구 행복동'은 도시인들이 향유해야 하는 생활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공간인 것이다. 큰오빠가 잘사는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고기 냄새를 맡으려 동네를 배회하는 모습은 '풍요 속의 가난'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또한 가난은 철거민들이 보상받는 아파트 입주권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 그들은 아파트 입주를 위하여 필요한 부대비용조차도 버거운 처지였다. 따라서 가난은 그들로 하여금 결국 아파트 입주권을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팔지 않으면 안될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인간 내면의 소외와 좌절감이다.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삶을 당당히 누리지 못하는 난장이 아버지의 식구들은 전형적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아버지의 소심함, 영수, 영호의 반항심, 명희의 임신과 자살, 영희의 가출과 매춘행위 등은 산업화가 낳은 사회의 어두운 부분인 것이다. 소설에서는 어머니만이 건강한 생활관을 소유하고 있는 최후의 인물로 보여진다. 어머니는 난장이 아버지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고 있으며, 자녀들이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 4. 동화적 화법과 메타포

1970년대의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시대의 주문예사조였던

사회적 리얼리즘을 비껴가는 이 소설은 동화적 화법을 사용함으로써 한 폭의 서정적인 그림을 연상시킨다. 당시의 소설이 포착하였던 앵글의 관습으로 보자면 영세민촌과 철거문제가 등장하는 경우, 대부분 과격한 행동, 폭력, 살벌한 대립, 투쟁, 데모, 살인 등과 같은 소재들이 다루어졌으나 이 작품은 그러한 문제를 '난장이와 꿈'으로 형상화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작가의 소설기법에 대한 선호성 또는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가의 휴머니즘에 있다고 본다. 작가는 영세민촌의 사람들을 투쟁이라는 이념에 꿰맞추기 보다는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가 불의한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을 형상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작품이 결코 문학성을 상실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정성 속에 인간의 실존이 더 명확하게 살아났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배경에서 오는 상징이나 메타포는 다층적이다.

첫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거주지명이다. 영세민들이 살던 공간은 그들에게 하나의 보호공간이었다. 다음은 역설적인 한 고백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이 일정한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두번째로 아버지가 난장이로 등장하는 것은 현대사회 속에서 한 가정의 무게를 지탱하기에도 벅찬 가장(家長)의 모습을 비유했다고 본다.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사람들은 이 신체적 결함이 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아버지가 늙어가는 것을 몰랐다. 아버지는 스스로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체념과 우울에 빠졌다." '난장이의 꿈'이란 비유는 끝내 버릴 수 없는 희망과 같은 것이다.

세번째, 큰오빠가 일하고 있던 인쇄공장에서 보게 된 노비문서이다. 이는 '세습'에 대한 비유이다. 즉 가난과 굴종에 대한 세습이라는 심층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난으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사회계층을 암시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 5. 사회소설로서의 문제제기

우리는 위에서 소설이 주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이제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더 근접해 보고자 한다.

### 5.1 소외된 생활상과 소명의식의 결여

가난은 난장이 아버지 가정을 정상적인 사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우선 영수, 영호, 영화 세 남매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가정을 꾸러가기 위하여 학교를 중도에서 포기하고 직업전선으로 뛰어든다. “나의 라디오는 고장이 났다. 며칠동안 나는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지 못했다. 나는... 중학교 3학년초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계속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밀어 줄 힘이 없었다... 영호와 영화도 몇 달 간격으로 학교를 그만 두었다.”

난장이 아버지가 일한 것도 특별한 일이 못된다. 채권 매매, 칼갈기, 고층 건물 유리닦기, 펌프 설치하기, 수도 고치기 등이 전부였다. 어머니도 인쇄소 제본 공장에서 접지일을 하고, 영화는 슈퍼마켓 한 구석에 있는 빵집에서 일했다. 영호는 철공소, 가구공장 등지를 전전해야 했으며, 영수는 인쇄소에서 일했다. 옆집에 살던 명희는 다방 종업원, 고속버스 안내양, 골프장 캐디로 자리를 옮기다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임신한 끝에 음독자살하고 만다.

이들 인물군들에게서 직업의 소명을 찾기란 부담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원인을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도 또한 지나친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직업을 전전하는 이유는 사회의 불안정한 구조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 5.2 사회적 갈등과 폭력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대립으로 구체화된다. 갈등(Conflict)은 사회의 불평등한 요소들이 그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자체의 조절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한 사회 안에서 그 갈등이 대화나 토론으로 이루어질수록 선진사회라고 지목한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빈부의 갈등은 순수히 자본주의적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은 자신의 입주권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또한 가진 자들은 입주할 수 없는 자들에게서 싼 값에 그 입주권을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반면에 더 비싼 값에 입주권을 팔려는 영세민들의 본능은 치절해 보인다.

영수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던질 줄 알았다. 그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경찰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젓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도 폭력이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재난의 나라이다. 누가 감히 폭력에 의해 질서를 세우려는가?”

이 소설에 의하면 폭력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 인간의 권리를 짓밟는 모든 것은 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철거반원들이 들고 온 강제철거장만이 폭력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들린 쇠망치, 무자비한 언행이 폭력이다. 부동산업자들이 내민 프리미엄도 폭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꿈과 소망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명회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영회를 성적 노리개로 만든 사람들과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사회구조에도 폭력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가난, 그것이 인간의 생존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을 때 그 가난도 하나의 폭력인 것이다.

### 5.3 빈한(貧寒)과 대춘의 결탁과정

여성으로 등장한 명희와 영희는 두말할 나위 없이 피해자이다.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이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온 것이다. 가난에 의해 피해받은 여성, 명희와 영희는 이중적인 피해자인 셈이다.

명희는 여러 직업을 옮기다가 임신하게 된다. 그녀의 종말은 자살이었다. 명희는 자신의 순결을 그만큼 고귀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영희의 경우는 좀 다르다. 영희는 자신의 입주권을 산 부동산업자를 의도적으로 유혹한다. 목적은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입주권을 훔치는 것이다. 어느날 영희는 그를 마취시킨다. 그리고 입주권을 몰래 빼돌려 원상회복한다. 영희는 명희처럼 단순한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복수극을 계획한다는 점에서 영웅적인 처절함같은 것이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영희도 명희와 같이 피해자이기는 한가지이다.

### 5.4 정의실천의 시급성

이 작품은 사회정의를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다. 난장이 아버지는 끝내 공장 굴뚝에서 일하다 사고로 생명을 잃는다.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노동자의 한 전형(典型)으로서의 '난장이 아버지', 그에게 부여된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만다. 정의(Righteousness)란 것은 정치에만 적용되는 정치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소설을 통하여 볼 때 인간 삶의 모든 면에 실현되어야 할 가치인 것이다.

먼저 영세민촌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이 정의실천의 선결과제이다. 그들이 정당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철거당한 뒤 어디로 갈 것인지 대안을 세울 수 없는 형편이다.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심각해지고, 거기에 따라 안정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영세민촌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하는 공동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할 때 정의는 하나의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난장이 아버지의 가정은 각각 소외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는가. 정의란 바로 인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본권리를 수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6. 맺는 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단순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작가가 현실문제를 치열한 리얼리즘의 수법으로 파고 들지 않았어도 독자들에게 ‘현실’을 알리기에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적으로 이 작품을 대한다면 우리는 우선 ‘이웃’이라는 대상에 관하여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첫번째로 우리의 이웃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난장이의 가족처럼, 그들이 살고 있던 영세민촌처럼, 가난으로 소외되고 기본생존권마저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공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허) 사회구성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그들은 물질적인 결핍 때문에 때로 인간 이하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폭력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든 비가시적인 것이든 인간의 인간됨을 방해하는 폭력은 제거되어야 한다.

세번째로 예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물으셨을 때, 예기치 않았던 사람, 사마리아인이 거론되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율법

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보인다. 율법사는 이렇게 율법을 인용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눅 10:27)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사랑이 다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정의의 실현도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사회의 소외된 자들에 대해 우리도 구체적인 행위로서 스스로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누적된 불평등, 인간소외, 인간성 말살 등과 같은 현상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이 소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배후에 생긴 사회문제, 즉 빈부격차가 어떻게 내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빈부격차가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소설에서 찾아보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해 보자.

2. 소설의 지문에는 작가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소설이론의 정설이다. 다음과 같은 지문이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예 1. “넌 학교에서 죽은 교육을 받았어.”

예 2. “살기가 너무 힘들다.”

예 3.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져 줄 사람이었다.”

3. 여러분이 등장인물들 중 영수, 영호, 영희 또래의 나이로서 그들의 환경과 처지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바꾸어서 토론해 보자.

4. 성경에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압제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아보고, 변호하며, 고난 중에 도우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정의실현이라는 면에서 성경의 맥락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 소설을 통하여 논의해 보자. 88